

# 각 구단 사령탑 이구동성... “타도 두산”

###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한국시리즈 3연패 노리는 두산 베어스 ‘공공의 적’으로 지목

각 구단 사령탑들이 한국시리즈 3연패에 도전하는 두산 베어스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 홀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서 감독들은 두산에 대한 경계심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2015년 정규리그 2위에 오른 두산은 그해 한국시리즈에서 정규리그 1위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를 물리치고 정상에 섰다.

두산은 지난해 ‘몬스터 시즌’을 보내면서 통합우승을 맞았다.

두산은 정규리그에서 단일 시즌 최다승인 98승(1무50패)을 거두며 정규리그 정상에 섰다.

지독한 타고루저 속에서 ‘판타스틱4’(더스틴 니퍼트, 마이클 보우덴, 유희관, 장원준)는 모두 15승 이상을 수확, 89승을 합작했다. 3할 타자만 6명이 등장한 두산 타선은 팀 타율(0.288)과 팀 홈런(183개)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 겨울 전력 투수가 거의 없었던 두산은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다.

두산 김태형 감독을 제외한 사령탑은 모두 미디어데이에서 ‘타도 두산’을 외쳤다. LG 트윈스의 양상문 감독은 “한 팀이 통틀리는 프로스포츠는 존재하면 안된다. 발전도 되지 않는다”며 “두산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 감독, 선수들이 어느 해보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잔뜩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양 감독은 “우승은 하늘이 내



2017 타이어뱅크 KBO 미디어데이&팬페스트 행사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10개 구단 감독과 대표선수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려주는 것이니 기다려보겠다’며 두산을 제치고 우승하겠다는 욕심도 드러냈다.

두산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은 “말하면 우리가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돌려 말하겠다”면서도 “이미 양 감독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다’고 두산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았다.

김기태 감독 또한 “우리는 우승을 하고 싶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우승할 수 있다”며 “마음은 간절하다. 간절한 팀

에 좋은 선물이 갈 것”이라고 우승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NC 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은 “우승후보로 두산을 많이 꼽지만, 야팀이 강자를 이기는 것도 야구의 매력”이라며 “9개팀 모두가 두산의 3연패를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kt 지휘봉을 잡은 김진욱 감독은 “김경문 감독님, 양상문 감독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난해

두산에 빔을 많이 쬐는데, 올해 갖고 싶다. 9개 팀이 두산의 우승을 말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감독들의 공격을 받은 두산의 김태형 감독은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시리즈 3연패를 다짐했다.

김태형 감독은 “모든 팀들이 우승할 수도,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속마음은 우승”이라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제2회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 성료

제2회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가 지난 28일 용담댐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 군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육상연맹, 전국마라톤협회 주관한 이번대회는 풀 마라 10km, 5km 코스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가선수들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진안 용담댐의 봄 정취와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며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풀코스 남자부에서는 2시간50분16초를 기록한 나종태씨가 1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3시간46분46초를 기록한 박순남씨가 1위를 했다.

하프코스 남자부에서는 이재식(1시간24분13초), 여자부는 정기영(1시간30분52초)씨가 정상을 차지했고, 10km 남자부는 김선호(36분23초), 여자부는 이은혜(42분10초), 5km 남자부는 김승형(17분35초), 여자부는 남미옥(21분38초)씨가 각각 1위로 끝내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2017년 전북생문의 해를 맞이해 올해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북부마사지산업원에서 열리는 진안홍삼 축제와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을 즐기는 전북투어패스 홍보도 함께 이뤄져 대회에 참가한 마라톤동호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진안=유태만기자

### 태권도 꿈나무 열면 경연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

제37회 전라북도교육감배 태권도대회가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박우정 군수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고창군태권도협회 박원성 회장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최동열 회장 등 내빈들과 선수단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선수와 심판대표 선서, 전주제천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우정 군수는 “전북도의 태권도 꿈나무를 발굴하는 대회를 고창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 꿈나무 선수 모두가 잘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에는 중·고등부 선수들의 겨루기 대회가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초등부과 중등부 학생 선수에게는 오는 5월 충청남도에서 열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 최종선발전 출전지력이 부여됐으며 고등부 입상자는 올 전국체육대회 전북대표 선발 랭킹포인트 점수가 부여됐다.

경기 결과 남자초등부 왕어진(전주남초), 여자초등부 맹서연(전주남초), 남자중등부 이승민(전북체육고), 여자중등부 박소정(전주기린중) 남자고등부 이명진(전북체육고), 여자고등부 빈혜민(전북체육고)가 우수선수상을 받았으며 김정환 감독(전주남초)과 성준기 코치(전북체고)는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슈틸리케, “비난 여론 당연, 최선 다해 월드컵 진출하겠다”

### 오늘 시리아와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7차전

### “앞으로 매 경기가 결승전 시리아 이길 수 있다” 승리 다짐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신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며 오로지 월드컵 본선행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슈틸리케 감독은 27일 오후 3시30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시리아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8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벌써 2패를 기록했고, 승점도 10점에 불과하다. 그런 (비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최종예선이 시리아와 무승부를 거뒀을 때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생각은 이 팀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월드컵에 진출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승점 쌓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슈틸리케 감독은 “내 나이가 만 62세이고 감독 생활을 오래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봤다. 성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진이 계속될 경우 거취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은 오늘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리아와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7차전을 갖는다.

한국은 6경기를 치른 현재 3승1무2패(승점 10)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중국 원정 패배로 최종예선 2패째를 당한 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시리아를 잡아에만 2위를 시수할 수 있다. 만일 일격을 당할 경우 4위까지 추락할 수



도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앞으로는 매 경기가 결승전이 될 것이다. 당연히 시리아를 이

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